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음악 급수시험제도 비교연구

권 수 미* · 정 완 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국학원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음악급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올바른 음악평가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는 학문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국외에서 운영되는 음악급수제도 중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영국의 ABRSM과 미국의 NYSSMA의 음악급수제도 중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지원하는 피아노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수제도의 역사와 배경, 구성, 평가내용 및 방법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급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국내에서 운영되는 한국학원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음악급수제도는 해외 음악급수제도에 비해 평가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방법이 제한적이었다. 또한 음악학습능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음악급수제도에 비해 연주력 평가에 국한하고 있었다. 한국학원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음악급수제도의 목적과 평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기가 힘든 것도 보완이 필요한 문제로 나타났다.

※ 주제어: 피아노교육, 음악교육, 연주평가, 음악평가, 급수제도

차 례

I. 서 론

1. 도입
2. 연구대상 및 연구 제한점
3.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II. 본 론

1. 각 급수제도 운영기관 및 역사
2. 각 급수제도 구성 및 특징
3. 각 급수제도의 평가 내용
4. 각 급수제도의 평가 방법

III. 결론 및 제언

* 한국교원대학교 조교수/ 교신저자

** 중앙대학교 교수

I. 서론

1. 도입

어느 분야이던 성공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학습 못지않게 효과적 평가도 중요하다. 공교육의 경우 오랜 기간에 걸친 교육기관 관계당국 및 관계기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 의한 논의와 시행 등으로 다양한 평가제도가 정착되어 시행되고 있다. 최근의 우리나라 교육을 살펴보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공교육 기관이외의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나 교육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험을 흔히 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 알고 싶으면 토익이나, 토플, 텡스 등의 평가를 치르고, ‘한자능력 검정시험’에서는 자신의 한자 실력을 ‘등급’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음악 분야에 있어서는 연주능력을 평가하는 콩쿠르나 입시평가회 등이 범람하는 반면, 체계적 음악 교육평가제도를 찾아보기 힘들다(윤병우, 1992).

국내 대부분의 음악대학 및 예술고등학교 입시평가에 있어서도 제한된 짧은 시간에 연주평가를 해야 하는 행정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평가내용과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김현명 2009; 권수미, 2014; 노원정, 2004; 송해정, 1997; 윤병우, 1992). 이 같은 국내 음악대학 및 예술 고등학교의 입시평가제도의 문제점은 국내 연주교육시장에도 그 영향을 끼쳐 대부분의 콩쿠르나 급수제도평가에서 평가시간,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이 획일적이고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평가제도들도 지역 및 특정단체 등에 국한되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공감대가 미흡하며 평가제도의 효율성과 이의 음악학습의 바람직한 성장에의 기여도 등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에서 학생의 음악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수시험제도 중 가장 많은 학습자들이 지원하는 피아노부분의 평가방법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 급수제도 중 피아노 부분의 평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올바른 음악평가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는 학문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 제한점

유럽이나 북미지역에서는 50년에서 100년의 역사를 통해 객관성과 체계성을 갖는 음악급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왕립음악대학연합회(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이하 ABRSM)에서 운영하는 급수제도, 캐나다의 로얄 콘서바토리에서 운영하는 급수제도(Royal Conservatory of Music Examination, 이하 RCM), 전미음악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전신 MENC “NAfME”로 칭한다) 산하 50개 주연합 단위 음악협회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급수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학원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음악급수제도가 유일한데, 20여 년 동안 운영해오며 최근 2013년 12월 31일자로 ‘민간자격’으로 등록을 마치고 ‘국가공인 민간자격 급수시험’으로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즈음에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급수제도의 평가 내용·방법 및 발전방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음악평가제도들 중 역사와 전통이 있고 국제적으로 그 가치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왕립음악대학연합회의 음악 급수제도(ABRSM)와 미국의 전미음악교육협회 산하 50개 주연합 단위 음악협회의 회원들 중 가장 성공적인 운영을 보이고 있는 미국 뉴욕주 학교 음악협의회(New York State School Music Association, 이하 NYSSMA)의 급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급수제도가 운영하는 평가악기의 종류, 평가내용과 방법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급수시험 종목 중 가장 많은 음악학습자들이 지원하는 피아노 분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한다.

3. 연구 내용 및 연구방법

국내에서 운영되는 음악급수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운영되는 음악급수제도 중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있는 영국의 ABRSM과 미국의 NYSSMA의 음악급수제도와 한국 학원 연합회 산하 음악 교육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음악급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세 기관에서 운영되는 음악급수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실라버스(ABRSM Syllabus), 매뉴얼(NYSSMA Manuel), 그리고 온라인 자료(음악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수집하여 문헌비교 연구를 실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음악급수제도를 운영하는 각 기관들의 역사는 어떠한가?
- 각 음악급수제도의 구성 및 특징은 어떠한가?
- 각 음악급수제도의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각 음악급수제도가 운영되는 방법은 어떠한가?
- 국내에서 운영되는 음악급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II. 본론

음악급수제도는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의 음악적 이해와 악기연주 실력을 평가하여 줌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장점 또는 단점을 확인하여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문제점은 보완하여 음악학습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에서 학생의 음악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급수시험제도의 평가방법 사례를 조사하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악 급수제도 중 피아노 부분의 평가와 비교해 봄으로써 올바른 음악평가제도가 국내에서 정착될 수 있는 학문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외에서 운영되는 각 급수제도 운영 기관들의 설립배경 및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1. 각 급수제도 운영기관의 설립배경 및 역사

1) 영국왕립음악대학연합회(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 이하 ABRSM)의 음악 급수제도

1889년 4개의 영국왕립음악대학(Royal Academy of Music, Royal College of Music, Royal Northern College of Music, Royal Scottish Academy of Music & Drama)이 연합하여 설립한 영국왕립음악대학연합회(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 of Music, 이하 ABRSM)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제도 시행, 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음악서적 출판을 통한 음악적 성취 지원, 그리고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음악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이다. 120년의 전통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세계 최대의 음악시험기관으로 매년 90여 국가에서 65만 명 이상이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수시험에 참여하고

있다(Associated Board of the Royal Schools of Music[ABRSM], 2013a).

ABRSM 급수시험 대학 입학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6급부터 받은 시험 평가결과에 따라 일부 국가의 대학 지원 시 차등적으로 가산점이 부여 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음악교과 평가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양윤정, 2013) 영국 외에도 호주, 캐나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ABRSM 급수 시험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120년 동안 영국의 음악교육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져진 ABRSM의 공신력이 높게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미국 뉴욕주 학교음악협의회(New York State School Music Association 이하, NYSSMA) 급수제도

뉴욕주 학교음악협회의 합의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뉴욕주 학교음악 협의회(NYSSMA)는全美음악교육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Music Education, 이하 NAFME) 산하로 각 50개주에 설립된 비영리 교육단체 중 하나이다. 뉴욕주 학교음악 협의회(NYSSMA)는 1955년 9월25일 뉴욕주 교육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全美음악교육협회의 산하에 속한 50개 주연합 단위 음악협의회들은 각 주에 속한 공립학교 음악교육과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는데, 이들 중 뉴욕주 음악학교협의회는 규모나 활동 면에서 가장 크고 활발한 성공적인 교육단체이다. NYSSMA는 주교육청과 NAFME본부, NAFME의 동부지부, 카운티의 음악교육협회들, 주내의 다른 협회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으며 뉴욕주안에 7개의 하부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급수시험과 같은 음악교육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약 6,000 명의 음악교육에 관련된 정회원이 가입되어 있고, 해마다, 약 100,000 명에 해당하는 뉴욕 주의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해 봄에 연주 급수평가에 참여하고 있다(NYSSMA Manuel, 2009).

3) 한국 음악실기 급수자격 검정시험

사단법인 한국 학원 총연합회의 하부 계열인 음악 교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음악실기 급수자격검정 시험은 지난 1978년 음악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20여 년 동안 운행해 오고 있다. 음악 교육 협의회는 전국에 설립된 사교육기관인 학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대변하기 위하여 지난 1957년에 창단된 사단법인 한국 학원 총연합회가 운영하는 11개 계열(인문, 외국어, 기술, 미술, 기술, 독서, 보습, 속셈/경리

/회계, 서예, 컴퓨터, 웅변) 중 한 계열로서, 특히 공교육에서 부족한 음악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교육 단체들의 조직인 것이다.

이 단체가 급수자격 시험을 설립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악교육 선진국에서는 음악교육 표준화의 일환으로 다양한 급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아직 그 기준이 없어 학생이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학원을 이동했을 때 교육의 연계성을 찾기가 힘들어 교사 개인의 판단에 의해 학생을 평가하는 어려운 실정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http://www.ma.or.kr/>, 2014. 10. 22 접속).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음악 교육 협의회에서 음악학습자의 수가 가장 많은 피아노교육에서부터 급수제도를 시작하였으며 개선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에 새롭게 출판한 『피아노 실기 급수 검정을 위한 피아노 급수 지정곡집』 서문에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음악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급수가 한 급씩 올라가는 것을 통해 성취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입시, 취미, 성취, 취업, 무대경험, 학원경영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급수를 통해 음악 실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지원하는 것을 본 급수제도 운영의 목적으로 삼는다.”(피아노급수 지정곡집, 머리말, p.3)

국내의 음악교육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년의 길지 않은 설립 역사를 거쳐 나름대로 음악 실력의 객관적인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로 음악급수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음악 교육 협의회 구성임원 및 회원 대부분이 사교육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관에서 수여하는 급수자격증이 법적,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갖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4) ABRSM, NYSSMA, 그리고 한국음악실기 급수자격 검정시험 운영기관의 설립배경 및 역사 비교

음악교육을 장려하는 국가의 호응과 지원을 받으며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 성장해온 영국의 ABRSM의 급수시험, 전미 음악교육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성장해 온 NYSSMA에서 운영하는 음악급수제도는 20년 역사를 지닌 국내 한국 학원 총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음악실기 급수제도와 설립 및 운영에 있어 큰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음악실기 급수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 학원 총연합회는 그 설립배경을 전국 8만 5천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http://www.ma.or.kr/> (2014. 10.24 접속)). 따라서 이들이 주관하는 국내 음악급수제도 역시 학생들의 음악학습발전과, 동시에 협의회에 가입된 음악학원들의 운영과 원생관리 측면에도 관심을 두고 운영되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또한 비영리단체로 국가자격시험으로 인정받고 각 주에 속한 공립학교 음악교육과 교육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ABRSM이나 NYSSMA 급수제도의 설립배경과도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2. 각 급수제도 구성 및 특징

1) ABRSM 음악 급수제도의 구성 및 특징

ABRSM의 급수시험제도는 피아노를 비롯해서 현악, 관악, 성악, 이론 등 총 35가지의 악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에서 이 급수시험은 교육부로부터 국가자격시험으로 인정받아 다음 <표 1>과 같이 세부적으로는 예비단계부터 1급-8급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앙상블시험, 그리고 전공자 연주시험을 위한 디플로마 시험단계,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참고, <http://www.abrsm.co.kr/2014.05.22> 접속).

연주자는 해당 급수에 도전하여 평가를 받고 각 수준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연주능력에 도달하는 합격자들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증서(Certification)를 취득하게 된다. 8급 이상은 전공자 수준으로 여기서 실시되는 디플로마 시험은 음악대학시험 수준과 유사하여 높은 점수로 합격한 학생은 입학 시 가산점은 물론 ABRSM의 장학금 혜택을 받기도 하며,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에서 음악인과 비음악인이 공유하고 교차하는 제도로 잘 알려져 있다.

<표 1> ABRSM 음악급수제도의 구성

	단계	분야	내용	점수
평가 시험	예비평가	피아노, 성악, 현악기, 관악기	선율/기본기, 청음 지정곡 1곡, 자유곡 1곡	합격여부 없음
	연주평가	급수시험 악기와 동일	자유곡 1곡	
급수 시험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난이도 1급/하⇔ 8급/상)	피아노 등 건반악기,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성악	1. 시험곡 3곡 A, B, C, 리스트에서 각 1곡 씩 선택 2. 스케일, 아르페지오, 반드시 암보 3. 초견 4. 시창/청음 * 6급 이상 지원 시 이론이나 뮤지션십 5급 이상 합격 필수	1. 30점씩 90점 2. 21점 3. 21점 4. 18점 총 150점 (과락 없음) 최우수: 130점 우수: 120점 합격: 100점
		뮤지션십	시창, 청음, 조옮김, 즉흥연주 등	최우수: A 우수: B 합격: C
		이론	조성, 음정, 화성, 음악용어 및 기호, 작곡 등	총 100점 최우수: 90점 우수: 80점 합격: 66점
양상블 시험	초급 중급 고급	2-10인 구성, 악기 편성은 자유	스타일과 빠르기가 다른 구 개 이상의 곡	최우수: A 우수: B 합격: C
디플로마 시험	DipABRSM	기악 및 성악	연주: 연주, 구술시험 및 논문, 초견	디플로마 페이지 참조
	LRSM		교수법: 구술시험과 실연, 논문, 초견	
	FRSM		지휘: 편곡제출, 리허설과 지휘	

2) NYSSMA 급수제도의 구성 및 특징

NYSSMA에서는 현악, 관악, 타악, 성악, 피아노가 개설된 독주분야와 실내악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급수평가제도와는 달리 대규모 학교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이 참여하는 단체분야의 연주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기기 위하여 경쟁하는 여타 음악대회와는 달리 NYSSMA 연주평가제도에서는 참여한 학생들과 단체에게 서술형으로 작성된 구성적인 평가지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연주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때문에 페스티벌(Festival)이라 불리고 있다.

NYSSMA에서는 봄에 열리는 연주급수평가 이외에도 겨울에 4,000명 이상이 참가하는 겨울 학술발표회, 여름 음악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음악교사와 학생들의 음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음악 소식지를 발행하여 일 년 내내 모든 NYSSMA 회원에게 음악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NYSSMA의 급수제도는 1급(초급)부터 6급(상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뉴욕학교 음악협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회비를 납부한 공립 및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급수시험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은 해당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가 각 지역의 학교음악협의회 지부에 대표로 신청하게 된다. 급수 시험 후 학생들의 연주 평가자는 학생 개인이 아닌 각 학교로 배부된다. 매해 3, 4, 5월 봄 학기에 수천 명에 이르는 학생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을 통해 습득한 음악적 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NYSSMA 평가시험(Evaluation Festivals)에 지원하는데, 한 악기 당 1회만 지원 가능하다. 이 때 학생당 평가를 받는 연주시간은 피아노 분야의 경우, 독주곡과 음계 및 시창시험을 모두 포함하여 10분(레벨 1-4)에서 15분(레벨 5-6) 정도씩 소요된다. 이 평가는 뉴욕 주 15개 지역으로 나뉘어져 지역별 고등학교들을 순회하며 번갈아 실시된다. 2014년도 NYSSMA 페스티벌 캘린더를 살펴보면 뉴욕 주 15개 지역에 독주와 실내악 급수평가만 3, 4, 5월 동안 97회 이상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고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 급수평가는 48회 이상 계획 되어 있다(<http://www.nyssma.org/wp-content/uploads/2013/06/NYSSMA-Festival-Calendar-1-14-14.pdf>, 2014. 05.22. 접속).

3) 한국 음악실기 급수자격 검정시험의 구성 및 특징

한국 학원 총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고 16개 시도 지회에서 주관하는 본 급수시험은 지난 20여 년간 피아노 부문만 급수시험을 유지해오다가 2005년부터 바이올린, 플루트, 이론시험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http://www.ma.or.kr/>, 2014.10.22 접속). 시험을 치르는 횟수와 자격요건에 관하여 우선, 피아노 실기 급수 시험의 경우,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정회원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일반 급수시험(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넷째 주 토요일 실시, 총 7회)과 비회원의 학생들도 응시할 수 있는 오픈급수(2월, 5월, 8월, 11월 넷째 주 토요일 실시, 총 4회) 시험이 있다. 이 전에는 비회원 학원장이나 개인교습소 혹은 개인 레슨을 통하여 피아노 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었으나 점차 급수자격 검정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이다.

관현악 실기 급수의 경우 일 년에 4회 오픈급수를 통해 초, 중, 고등부 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이 참여가 가능하다. 반면에 음악 이론 급수 검정은 일 년에 1회 실시 하고 있다.

일반급수 시험과 오픈급수 시험 빈도를 비교해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일 년에 총 12회로 거의 매달 넷째 주 토요일 급수 시험을 치르는 꼴이다. 이는 피아노 실기 검정시험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급수시험에서 지원자가 평가받는 연주시간에 관해서는 지원요강에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음악 교육 협의회와 전화교신을 한 결과 일반적으로 급수 수준에 따라 1분 30초에서 3분미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응답하였다(음악교육협의회 전화교신 2014. 03. 21).

4) 각 급수제도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

우선 급수제도 평가구성인 악기 선정에 있어 국내 음악 교육 협의회와 급수제도는 ABRSM이나 NYSSMA의 급수제도보다 평가 대상 악기의 범위가 작다. ABRSM의 평가에서는 35개 종류의 악기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NYSSMA에서는 다양한 독주악기, 앙상블 이외에 학교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의 연주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국내 음악 교육 협의회와 급수제도는 피아노·바이올린·플루트와 같은 2-3개 정도의 독주악기 평가만을 다루고 있어 그 범위와 규모가 현저히 작은 편이다.

각 급수제도의 세분화된 등급 수를 비교해 보면 적게는 6단계부터 많게는 1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우선, ABRSM의 경우, 예비단계부터 1급-8급까지 총 9개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앙상블시험, 그리고 전공자 연주시험을 위한 디플로마 시험단계, 총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NYSSMA의 급수제도는 1급(초급)부터 6급(상급)까지 총 6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음악 교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급수제도는 가장 기초 단계인 12급부터 상급 1단계와 최상급 단계인 BP(Best Player)급까지 총 1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가장 단계 급수가 적은 NYSSMA의 경우 한 학생이 두 가지 이상의 악기 연주 시험에 지원할 수는 있어도 한 악기 당 일 년에 한번만의 연주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원자는 동일한 독주곡을 여러 시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원하여 연주할 수 없다. 반면에 단계 급수가 가장 많은 국내 음악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급수제도에서는 8급부터는 지원자의 실력이 급격히 발전하였어도 반드시 순차적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지원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ABRSM이나 NYSSMA의 급수제도는 국가나 주정부의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평가결과가 공교육과 연계되어진 교육시스템에서 학교 음악평가나 대입입시에 반영이 되는 수혜가 있다. 이는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음악교육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음악 교육 협의회 급수제도는 대부분 회원으로 가입된 음악학원이나 교습소 원장들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들만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원과 학생들의 개개인의 음악적 성장과 만족만을 제공할 뿐, 그 평가 결과를 공교육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측면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3급 이상 합격한 학생에게는 특전으로 수도권 일부 음악대학(경북대, 경문대, 국제 예술대, 수원여자전문대, 숭의여대, 김포대, 여주대, 창신대, 동주대, 혜천대 등) 실기시험 시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http://www.ma.or.kr/>, 2014.10.22 접속).

3. 각 급수제도의 평가 내용

1) ABRSM 독주분야 급수제도 평가 내용

ABRSM 급수시험 평가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각 급수별로 서로 다른 세 시대의 선곡목록에서 선정한 3개의 독주곡뿐만 아니라, 테크닉, 초견, 시창·청음, 뮤지션십(Musicianship), 이론 등을 함께 학습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연주 능력만을 평가하기보다는 연주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이고도 기본적인 음악적 소양을 평가하려는 시험임을 보여준다.

“시험관들은 성과 그 자체보다는 음악을 만드는 질을 평가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험관들은 그들의 악기분야 만이 아니라 모든 기악시험 평가를 하는 것이고 기술적인 면보다는 음악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서울신문, 2005.05.05일자)

따라서 시험 시간은 지원자 한 명당 1급의 경우, 12분 내외, 그리고 조금씩 시간이 더해져서 8급의 경우 30분 동안 치르게 된다. ABRSM 음악급수시험의 평가 분야와 내용은 위 <표 1>에 제시하고 있다. 35가지 이상의 광범위한 평가 분야 중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피아노 분야의 평가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평가제도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을 아우르는 방대한

양의 독주곡 레퍼토리 목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음은 피아노 1급 평가 내용 및 구체적인 평가 기준표이다(ABRSM, 2013b p.9).

<표 2> ABRSM 피아노 1급 평가 내용 및 레퍼토리

음계 및 분산 화음	음계	C, G, D, F 장조 음계를 각 손 따로 연주하기 (2옥타브) A, D 단조 (화성단음계나 선율단음계 중 연주자가 선택)
	반진행 음계	C 장조 (첫 음은 같은 음에서 시작한다. 1옥타브)
	분산 화음	C, G, F 장조 (다음 패턴을 따라 각손 따로 연주할 것) A, D 단조 
독주곡 (A,B,C 중 곡씩 선택)	List A (총 6곡 중 1곡 선택)	1. 던컴 (Duncombe): 가보트(Gavot) 2. 쾨버거(Kirnberger): 미뉴엣(Minuetto) 3. 비발디(Vivaldi): 『사계』 중 가을(Autumn) 편곡: 웨지우드 4. 클레저(Gläser): 『피아노조곡』 중 앵글로이즈(Angloise) No.11 (출판사: Schott ED 2572/MDS) 5. 헨델(Handel): 『헨델의 쉬운 피아노 춤곡 및 조곡』 중 행진곡 G 장조, HWV 419. No.7 (출판사:Bärenreiter BA 6578) 6. 퍼셀(Purcell): 『영국건반음악 1663-1702』 중 미뉴엣 A단조 No.1, Z.649. (출판사: ABRSM Publishing)
	List B (총 6곡 중 1곡 선택)	1. 던힐(Dunhill) 『First Year Pieces』 중 에린의 노래: No.8 2. 게디크(Gedike) 『60개의 작은 건반음악모음곡』 중 “슬픔” (Grief): Op.36, No.39 3. 영국민요 “이른 아침”(Early in the morning), 편곡 베랫 (Barratt)(출판사: 1, 2, 3 Selected Piano Exam Peices 2009-2010, Grade 1 ABRSM Publishing) 4. 드보르작(Dvorák) 『간단한 클래식 소품집(75a)』 중 No.1 카바티나(Cavatina), Grade 0-1, 편곡: 그리튼(Gritton, Faber 출판사) 5. Marjorie Helyer Dragonflies: from The Greenwood Tree (Stainer & Bell) 6. 슈베르트(Schubert) “미완성교향곡 주제선율” 『피아노 타임』. 편곡: 홀(Hall) 출판사: OUP

	List C (총 6곡 중 1곡 선택곡)	1. Arpád Baláz Trudging 2. Paul Drayton Never Vex a Tyrannosaurus Rex! 3. John Rowcroft African Dance (1, 2, 3, <i>Selected Piano Exam Peices 2009-2010, Grade 1 ABRSM Publishing</i>) 4. Chen Yi Singing in the Mountain. <i>Spectrum 4: An International Collection of 66 Miniatures for Solo Piano (ABRSM Publishing)</i> 5. Alan Haughton Bluemerang. <i>Piano Time Going Places, arr. Hall (OUP)</i> 6. Kabalevsky My Stubborn Little Brother: from <i>35 Pieces for Piano, op.89. Gradations (Boosey & Hawkes/MDS) or Keynotes, Grades 1-2 (Faber)</i>
초견	4-6 마디 길이에 4/4, 3/4, 또는 2/4 박자, 그리고 C, G, F 장조 혹은 A, D 단조의 다섯손가락 패턴으로 이루어진 곡을 각 손 따로 초견 연주한다. 이 때, 간단한 셈여림, 리듬, 아티큘레이션, 그리고 임시표 등이 제시된다.	
청음	1. 시험관이 연주하는 곡을 들으며 손으로 박자치며 2박인지 3박인지 말하기 2. 시험관이 연주하는 세 개의 짧은 악절들을 듣고 메아리처럼 노래하기 3. 시험관이 연주하는 악절의 음정변화 지적하기 4. 시험관이 연주하는 곡을 듣고 셈여림(크게 혹은 작게)과 아티큘레이션(부드럽게 혹은 끊어서)에 대해 대답하기	

제 1급의 독주곡 선곡목록을 살펴보면, List A는 크게 바로크 시대의 작품들이고, List B는 고전과 낭만, 그리고 List C는 현대의 피아노 작품들로 분로 구분해 놓은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때 선곡목록을 살펴보면 바로크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영국출신의 작곡가들의 작품이 대거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List A 바로크 시대 곡목 중에는 영국의 건반음악이 융성했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헨델과 퍼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 List C의 현대음악의 곡목 중에는 P. Drayton(1944-), J. Rowcroft, A. Haughton과 같은 현존하는 영국작곡가가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국 음악교육의 자주성을 바탕으로 자국 내 음악문화유산을 발전시키고 영국의 현대 음악 작곡의 활성화를 일으키려는 영국 음악교육자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테크닉 분야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1급에서는 흰건반에서 연주하는 C, G, D, F 장조와 A, D 단조 음계를 2 옥타브만 연주하는 것으로 피아노 교육을 갖 시작한

초급학습자들도 스케일 및 아르페지오 테크닉 연습을 병행 할 것을 권하고 있다. 동시에, 어린 손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2 옥타브 상·하행 스케일 연습에서부터 시작하여 학습수준에 따른 기술력과 지구력을 개발시키며 연주음역을 넓혀 나가게 하려는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케일이나 아르페지오 연습은 초급 피아노교재를 학습한 후 Czerny 연습곡이나 Hanon 연습곡을 학습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반해(권수미, 2010) ABRSM의 학습과정에서 살펴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연주곡과 함께 병행시키는 교육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8급의 테크닉 분야 평가에서는 음계와 아르페지오 유형을 세분화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기술습득을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반음계, 온음계뿐만 아니라 양손 3도와 6도 간격을 둔 음계를 레가토와 스타카토로 4옥타브 연주하기 등은 기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단조 음계나 아르페지오 등의 테크닉 시험에만 익숙한 우리나라 음대 피아노 전공생에게조차 익숙하지 않은 평가 항목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급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음계를 연주하기 위한 적절한 템포를 메트로놈 표기 해 놓음으로써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다(ABRSM, 2013b, p.15).

초견 평가에서는 우선 1급의 경우, C, G, F 장조의 다섯 손가락 패턴의 4-6 마디의 간단한 악구를 초견으로 연주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악곡을 수월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다섯 손가락 패턴에서 연주한다는 것은 엄지손가락의 회전과 교체 없이 시작한 자리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기초 피아노교재 초급단계를 학습 중이면 충분히 연주할 수 있는 난이도이다.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초견 학습에 사용되는 곡의 구성이 점차적으로 다양해지고, 악구의 길이가 길어지며 다양한 악상기호와 음악적 표현이 더해진다. 레벨 6, 7단계에서는 5/4, 8/5, 7/8, 7/4같은 혼합박과 변박을 포함하는 음악을 초견으로 연주하길 요구한다. 초견 시험 준비를 위해 시험곡의 길이, 조성, 박자, 성부, 화음패턴, 장식음의 유무 등을 실러버스에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청음시험 역시 학습자의 능력과 수준별로 평가 내용 및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진다. ‘좋은 귀’를 만들기 위한 청음 학습은 음악성 개발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학습활동으로 간주되어지는데, 이를 위해 ABRSM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을 듣고 소리 내어 노래 부르거나 내청으로 노래 부르기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레벨 1에서부터 6까지는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시험관이 연주한 리듬을 손뼉으로 치거나 선율을 메아리치듯 모방하여 노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한다. 이 때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모방 연주하는 악구의 길이와 음악적 요소가 점차적으로 길어지고 복잡해질 따름이다. 노래 부르기를 할 때, 목소리의 특성보다는 정확한 음정과악이 목표이며, 지원자는 원하는 모음이나 허밍, 휘파람 소리로도 부를 수 있다. 그 외에 시험관이 연주하는 악절의 음악적 특징과 학생이 연주하는 독주곡의 음악적 특징을 구두로 서술하여 대답하는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다. 레벨7, 8에서는 2성 혹은 3성부 악구의 음악을 듣고 시험관이 연주하는 성부의 대선율을 암보로 노래하는 활동과 주어진 악보의 종지를 듣고 그 종류를 분별하는 유형의 평가가 추가되어진다.

또한 ABRSM에서는 높은 등급의 연주수준을 달성하려면 음악의 요소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작품들(standard repertoire)이 다루어진다고 생각하는 6급에서부터는 음악적 이해가 연주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이론 학습을 점차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6급 이상의 연주 급수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음악을 이해하고 연주하는데 필요한 지식, 개념, 화성학을 포함한 5급 이상 이론 시험이나 음악적 이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즉흥연주를 평가하는 뮤지션십 시험 통과를 선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ABRSM, 2013a, p.10). 이론시험 시간은 1-3급의 경우 1시간 반, 4-5급의 경우 2시간, 마지막으로 6-8급의 경우 3시간에 이를 정도로 심도 있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 NYSSMA 독주분야 급수제도 평가 내용

NYSSMA 독주분야 급수시험은 각 급수별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평가내용을 갖는다. 이 때 각 급수별 평가 시간은 학생 1인당 1-4급까지는 10분, 5-6급은 15분이 소요된다.

- ① 각 급수별 요구되는 스케일
- ② 각 급수별 메뉴얼에 제시되는 독주곡 한 곡
- ③ 초전

NYSSMA 메뉴얼에 제시된 각 급수별 연주목록을 살펴보면, 우선 레벨1에 25곡 이상, 레벨2는 48곡 이상, 레벨3은 63곡 이상, 레벨4는 50곡 이상, 레벨 5는 84곡 이상, 레벨6은 70곡 이상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연주목록에 작곡가와 작품명만 제시된 것이 아니라, 악곡집 목록까지 포함되어 실제 선곡할 수 있는 작품 수

는 훨씬 더 방대하다. 이를 위하여 각 작품명 뒤에 권장되어지는 출판사명을 다양하게 표기해주고 있는데 이는 ABRSM에서는 영국 왕립 음악대학 연합회 내에서 출판하는 악보만을 사용 하여 학습하는 것과 차별화가 된다. 다음은 피아노 독주분야 레벨 1의 선곡 목록표이다(New York State School Music Association, 2009, <표 3> 참고).

<표 3> NYSSMA 피아노 독주분야 레벨1 선곡 목록표

작곡가	작품명	출판사
Armistead-Jones, M.	Fanfare and Other Piano Pieces (Nos. 1-8, 10, 12, 18 중 3곡)	BMC*
Bartok, B.	For Children, Vol. 1 (Either No. 1 or 3)	
Bartok, B.	Piano Pieces for Children, Vol. 1 (No. 6)	
Bastien, J.	Autumn Sonatina (악장 자유선택)	GWM
Bober, M.	Starfish	FJH
Branson, J.	Afternoon Waltz	Will
Brown, T.	The Best of Timothy Brown (1곡 선택)	
Brown, T.	The Best of Timothy Brown (1곡 선택)	FJH
Cooper, T.	Solo Adventure Books 1&2	CF
Ezell, H.	Toccata	WILL
Faber, N.	Walk in a Rainbow	FJH
Gaynor, J.	March of the Wee Folk	CHUR
Gillock, W.	Moonlight	WILL
Kabalevsky, D.	Twenty Four Pieces for Children, op. 39	GS
Nevin, M.	Helicopter Ride	BMC
Nevin, M.	Hoe-Down in Dublin Town	WILL
Nevin, M.	Jolly Mood	BMC
Olson, L.	Bumble Bee Toccata	CF
Olson, L.	First Sonatina (환악장 선택)	CF
Olson, L.	Rhythm Machine	CF
Rossi, W.	Surprising Solos, Book 2 (1곡 선택)	FJH
Russel, O.	Prince William	BMC
Schumann, R.	Album for the Young (No. 1, 2, or 5 중 1곡)	
Suzuki, S.	Suzuki Piano School, Vol. 1 (Either)	
Tan, C.	Through the Windowpane (1곡 선택)	

* 출판사명은 약자로 축약되어 표기되며 매뉴얼 인덱스에 설명되어있다. BMC는 Boston Music Company의 약자이다.

위 <표 3>에서 살펴보듯이 피아노 독주분야 레벨 1, 2, 3까지 선곡목록에는 유명작곡가의 친숙치 않은 작품이나 잘 안 알려진 작곡가의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작품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현대나 현존하는 작곡가들의 교육용으로 작곡된 창작품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들 현대작품이나 창작곡들 중에는 재즈 작품을 포함해 다문화적인 음악교육의 영향을 받은 아시아 민요나 아프리카 선율을 활용한 피아노 작품과 라틴 춤곡과 같은 이국적인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표 4> NYSSMA 피아노 급수시험 레벨 1-3급 독주곡 목록에 포함된 다문화적 특징을 지닌 작품들 예시

급수	작곡가	작품명
Level 3	Bober, M.	Tokyo Twilight
	Butler, J.	All That Jazz! Bk. 3 (2곡 선택)
	Garcia, W.	The Empire State
Level 4	Faber, N.	Egyptian Rhapsody
	LeCoz, M.	Original Piano Latin (2곡 선택)
	Mier, M.	MacDowell the World Loves Alla Tarantella Op.39 No.2 Scotch Poem, Op.31 No.2
	Mier, M.	Jazz, Rags & Blues, Book 4 (2곡 선택)
	Nyaho, W.	Piano Music of Africa and the African Diaspora, Vol. 1 (2곡 선택)

3) 한국 학원 연합회 주최 음악실기 급수자격 검정 시험 평가내용

지난 2008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한국 학원 연합회 주최 음악실기 급수자격 시험에서는 연주능력만을 평가하고 피아노 분야는 가장 기초 단계인 12급부터 BP(Best Player)급까지 총 82곡이 지정되어 있다. 이는 개정되면서 새로운 곡이 추가되어지고 난이도를 조정하였다고는 하지만, 각 급수별로 주어진 3-7곡의 지정곡 중 두 곡을 선택하여 연주하는 것을 평가 내용으로 한다. 앞서 NYSSMA 급수시험의 경우 Level 5 한 급수만 연주곡목이 84곡이 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13급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국내 급수평가제도의 연주곡목이 기껏해야 총 82곡에 그친다는 것은 다양한 학습자의 연주 능력을 평가하기에 레퍼토리 선택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http://www.ma.or.kr/2014>, 05.22 접속, <표 5> 참고).

<표 5> 피아노실기 급수검정 지정곡

급수	A곡	B곡
BP	Chopin Prelude Op. 28 No.16 Chopin Etude Op.10 No.8 Chopin Etude Op. 25 No.11	Beethoven Sonata Op.53 1악장 Beethoven Sonata Op.81a 3악장 Beethoven Sonata Op.57 3악장 Schumann Sonata Op.22 1악장
1	Liszt Gnomesreigen Chopin Etuden Op. 10 No.4 Chopin Etude Op. 10 No.12 J.S.Bach Italianische Konzert BWV 971 3악장	Beethoven Sonata Op.2 No.2 1악장 Beethoven Sonata Op.2, No.3, 1악장 Beethoven Sonata Op.10, No.3, 1악장 Beethoven Sonata Op.22, 1악장
2	Chopin Etude Op.10, No.5 Chopin Etude Op.25, No.2 Beethoven Sonata Op.10, No.1, 1악장	Beethoven Sonata Op.31, No.1. 1악장 Beethoven Sonata Op.27, No.2. 3악장 Mozart Sonata K.576. 1악장 Haydn Sonata Hob XVI:50 1악장
3	Bach Synfonia 3성 BWV794, No.8 체르니40번 연습곡 Op.299, No.20 Bach Synfonia 3성 BWV801, No.15	Mozart Sonata K.330. 1악장 Mozart Sonata K.311. 1악장 Haydn Sonata Hob XVI:37 1악장 Beethoven Sonata Op.2, No.1, 1악장
4	Bach Invention 2성 BWV775, No.4 Bach Invention 2성 BWV784, No.13 체르니40번 연습곡 Op.299, No.11	Kuhlau Sonatine Op.20, No.3, 3악장 Mozart Sonata K.545, 1악장 Mozart Sonata K.283, 1악장 Beethoven Sonata Op.49, No.2 1악장
5	Czerny Op.849, No.12 Czerny Op.849, No.26 Bach 12개의 작은 프레뤼드 BWV999 No.3	Kuhlau Sonatine Op.55, No.2, 3악장 Clementi Sonatine Op.36, No.5 1악장 Clementi Sonatine Op.36, No.6 1악장
6	Czerny Op.139, No.19 Czerny Op.139, No.36 Allegro(카를 추슈나이트 작곡) Etude(베르코비치)	Clementi Sonatine Op.36, No.2, 3악장 Kuhlau Sonatine Op.55, No.1, 1악장 Burgmuller 25번 연습곡 승마 장난꾸러기 Kavalevsky
7	Allegro(베르코비치 작곡) a 단조 연습곡(미요 작곡) Etude(니코로바 작곡) 익살(Czerny 작곡)	Clementi Sonatine Op.36, No.1, 3악장 Mozart KV.2. F Major Galop(Kavalevsky) Beethoven Sonatine, Kinsky-halm Anh.5
8	Etude(지그) Etude(취테) Etude(Gurlitt) Czerny 100번 No.6	변주곡(드부케) Moderato(Czerny) 스케르쫘(Kavalevsky) Op.39, No.12 Arabesque(Burgmuller)
9	Etude(쉴린스키), 우크라이나 민요, 샤타르 꼬마친구, 페줄트 미뉴에트	
10	Etude(베르코비치), 바이엘 연습곡 No.45, 굴리트 춤곡, 체르니100번 연습곡 Op.139, No.3	
11	베토벤 기쁨의 노래, 루소 주먹 쥐고, 열 꼬마 꼬마인디언(외국 곡), 어린이 노래 (프랑스 민요)	
12	나비야(도이칠란드 민요), 피어폰트 징글벨, 꼬마별(도이칠란드 민요), 슈베르트 자장가	

최상위 급수인 BP(Best Player)에 지원하기 위해 연주해야 할 작품으로 쇼팽 에튀드/프렐류드 작품과 베토벤 소나타 빠른 한 악장 각 한 곡씩 연주하는 내용 구성은 마치 음악대학 피아노 입시곡 연주 레퍼토리와 흡사하다. 1-6단계 시험곡을 살펴보면 A곡 그룹에서는 쇼팽 에튀드와 체르니 연습곡이, B곡 그룹에서는 소나타/소나티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가장 기초 단계인 9, 10, 11, 12급에서 제시된 연주목록은 작곡가도 명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곡인지 편곡된 곡인지 파악이 안 되어 교육적으로 어떤 학습가치가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각 급수 수준별 연주평가시간이 공지되지 않고 있다.

4) 급수제도 피아노 부분 연주 평가내용 비교분석

우선 평가의 핵심인 연주력 평가에서 영국 ABRSM이나 미국 뉴욕주 NYSSMA의 경우 다양한 시대와 종류, 작곡가를 포함해 수많은 연주용 또는 학습용 곡들이 평가를 위해 제시되어 있다. 반면 한국 학원 연합회는 각 급수별로 학습과 평가 준비를 위한 작품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총 13급에 모두 82곡만이 지정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각 급수제도의 가장 초급단계에서 제공하는 레퍼토리 빈도수를 비교해 보면, ABRSM의 1급이 18곡, NYSSMA의 1급은 27곡 이상, 마지막으로 한국학원연합회의 입문단계인 12급에서는 작곡가도 출판사도 밝혀지지 않은 채 단지 4곡만이 제목만 제시되어 있다.

급수시험에서 평가받는 연주 시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ABRSM에서는 시창, 청음, 뮤지션십의 평가 시간을 제외하고 1급에서 8급까지 독주곡만 12분-30분을 연주한다고 평가요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NYSSMA의 경우 독주곡과 음계 및 시창시험을 모두 포함하여 10분(레벨 1-4)에서 15분(레벨 5-6) 정도씩 소요된다. 반면에, 한국 학원 연합회 음악 교육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급수시험에서는 지원자 당 대략 1분 30초에서 3분미만의 연주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전국음악교육협의회 전화교신 2014. 03. 21). 떨어지고 붙는 당락을 결정하는 입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유형인 만큼 그동안 깔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주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수제도 운영의 방침이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이 아쉽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평가내용에 있어서 ABRSM이나 NYSSMA의 급수시험은 시대별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자국의 음악적 자주성을 확립하고자 모국의 작곡가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현대적 어법을 담은 다양한 스타일의 레퍼토리들을 다루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학원 연합회 급수제도의 경우

여전히 체르니 연습곡과 고전 소나티네/소나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한국에서의 입시나 콩쿨 준비 위주의 매우 편향된 레퍼토리로 한정되어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 외에 ABRSM의 경우 테크닉, 조건, 시창·청음, 이론 등을 평가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올바른 음악교육을 위해서는 테크닉과 뮤지션십(Musicianship)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수철학을 실행하는 사례인 것이다. NYSSMA의 경우도 각 급수별로 테크닉의 기본인 스케일을 평가에 포함시키며 스케일의 길이, 범위, 연주 속도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학원 연합회 급수제도에서는 연주곡 두 곡 이외에는 어떠한 학습 분야도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4. 각 급수제도의 평가 방법

연주평가는 총체적 접근방법(global approach)과 구체적 접근방법(specific approach)으로 대별된다. 총체적 접근방법은 연주의 결과를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오디션에서 주로 사용되며, 구체적 접근은 평가할 연주의 특정 측면을 미리 선택하여 이에 초점을 두고 연주를 평가하는 방식이다(박영배, 1998). 대부분의 연주평가는 이 두 가지 총체적 접근방법과 구체적 접근방법을 병행하여 연주의 특정 부분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체적인 연주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행해진다.

1) ABRSM 독주분야 급수제도 평가방법

ABRSM의 실라버스에 서술된 실기시험 평가목표는 “연주의 정확도, 기술적 숙련도, 음악적 이해도를 측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ABRSM, 201a, p.19)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주 평가와 함께 병행하는 스케일 시험, 청음시험, 조건 시험의 평가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각 등급에서 요구하는 테크닉의 숙련도, 정확도, 균형감과 음악적 형태가 갖추어진 연주인가? (독주 및 스케일과 아르페지오 시험)
- 청음시험에서 정확하고 신속하면서도 음악적 감각을 갖추어 반응하는가? (청음시험)
- 처음 보는 곡을 정확성, 조절능력, 지속능력, 음악적 표현을 지켜서 연주하는가? (조건시험)(ABRSM, 2013a, p.19)

이와 같은 평가 제도는 평가할 연주의 특정 측면을 미리 선택하여 이에 초점을 두고 연주를 평가하는 방식 구체적인 접근 방식의 유형으로 평가 목표에 근접할 수록 학생의 높은 성취도를 의미하며, 음악적으로 한 부분에서 부족한 면이 있어도 다른 부분의 성적을 합산해서 평가하도록 하는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ABRSM의 한국대표는 ABRSM 평가제도와 방법에 대하여 “전공자이든 비전공자이든 악기 연주자들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얼마나 실력이 높아졌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평가 방식”²⁾ 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시험이 결코 경쟁이 아닌 자신의 실력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기 급수시험은 총점 150점으로 산정되며, 100점 이상은 통과, 120점과 130점 이상은 각각 우수와 최우수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 때 평가기준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항목별 성취도를 제시하고 있어 평가의 신뢰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음악학습 상태를 진단하는데 도움을 준다(<표 6> 참조 <http://www.abrsm.co.kr/02test/03.php?depth=3>, 2014. 05.22 접속).

<표 6> ABRSM 실기과제곡 평가기준표

1-8 등급	실기과제곡 평가 기준표(Rubric)				
	음정	박자	음색	형태	연주
최 우수 27-30	- 매우 정확한 음과 인토네이션	- 능숙하면서도 유연한 박자감각 - 리듬의 성격도 잘 구사함	- 매우 적절히 표현 - 조성에 맞는 음색을 매우 섬세하게 사용	- 풍부한 표현과 적절한 음악적 형태 및 디테일 전달	- 자신감과 열정 - 곡의 성격과 양식을 선명하게 표현
우수 24-26	- 꽤 정확한 음과 인토네이션	- 일관되고 효과적인 템포 - 좋은 리듬 감각	- 대체로 신중하고 일관적 - 좋은 조성 감각	- 명확한 음악적 형태 - 디테일이 잘 표현됨	- 긍정적이고 확고한 음악적 신념 - 성격과 양식을 표현
합격 20-23	- 일반적으로 정확한 음정 - 조성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인토네이션	- 적절한 템포 일반적으로 안정된 박 - 전체적으로 정확한 리듬	- 일반적으로 전달될만한 표현 - 적절한 조성 감각	- 어떤 부분들에서 음악적 형태 또는 디테일이 나타남	- 대체로 안정적이며 실수를 바로 만회함 - 어느 정도 음악적 관련성을 표현함

2)서울신문 2005. 05.05 “영국 왕립음악원 이사회 시험 감독관 주디스 매시”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608029071>

1-8 등급	실기과제곡 평가 기준표(Rubric)				
	음정	박자	음색	형태	연주
17-19	- 잦은 실수 및 조성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한 인토네이션	- 적절치 않거나 신중치 않은 템포 - 불규칙한 박 - 부정확한 리듬	- 고르지 않거나 애매함 - 조성감각이 불충분	- 음악적 형태와 디테일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았음	- 불안정하고 불충분한 실수만회 - 음악성 관련성이 불충분
13-16	- 상당히 부정확한 음과 인토네이션	- 불규칙한 템포 또는 박	- 조성 조절이 매우 부족	- 음악적 형태와 디테일이 상당히 불충분	- 연결성이 없음 - 음악적 관련성이 없음
10-12	- 매우 부정확한 음과 음정	- 일관성 없는 템포 또는 박	- 조성감각 없음	- 형태와 디테일이 없음	- 짧은 섹션 이상을 이어가지 못함
0	-연주 없음	-연주 없음	-연주 없음	-연주 없음	-연주 없음

2) NYSSMA 독주분야 급수제도 평가 방법

NYSSMA는 연주평가시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도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연주 수준에 적합한 레퍼토리를 선택하여 연주의 질적인 측면, 구체적으로 음색, 음정, 프레이징, 리듬의 정확성, 등을 강조한 지도를 요구하고 있다(New York State School Music Association, 2009).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간의 경쟁보다는 전문가들의 구성주의적인 다양한 비평과 조언을 통하여 그들의 연주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NYSSMA의 매뉴얼에 제시된 연주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객관적인 평가와 학생의 학습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1-4급과 5-6급을 분류하여 평가방법을 다르게 하고 있다.

우선 독주 및 앙상블 분야 레벨 1-4에 해당하는 연주자들은 28점 만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 점수대에 다음과 같은 ‘매우 뛰어남’, ‘뛰어남’, ‘우수’, ‘만족’, ‘보통’, ‘노력요구’와 같은 묘사적인(Adjective) 평가를 받는다. 반면 레벨 5-6급에 해당하는 독주자 및 앙상블 연주자들은 100점 만점 척도를 기준으로 각 점수대에 A, B, C, D와 같은 Letter grade 평가를 받게 된다.

이 때 다른 학생들에 비해 탁월할 정도의 매우 뛰어난 연주 실력을 보여준 학생에게는 수료증 이외에 금상·은상·동상과 같은 상을 수여한다. 그 외에 페스티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 전반적인 연주 수준에 대해 다양한 비평과 조언이 적힌 서술형 평가지를 함께 받는다.

<표 7> NYSSMA 독주분야 급수시험 평가방법

레벨 1-4		레벨 5-6급			
Rating	Score	Rating	Score	Rating	Score
Outstanding	26-28	A+	97-100	C+	77-79
Excellent	21-25	A	93-96	C	73-76
Good	16-20	A-	90-92	C-	70-72
Satisfactory	11-15	B+	87-89	D+	67-69
Fair	6-10	B	83-86	D	63-66
Needs Improvement	0-5	B-	80-82	D-	60-62
				E	59 이하

이와 같은 평가 방법은 남과의 경쟁이 아닌 학생 스스로 목표를 부여하고 음악적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특히 1-4급의 어린 초·중급 수준의 학생들에게 점수로 성적을 제시하기보다 서술형 평가지를 제공하는 방식은 음악학습의 지속적인 동기부여 차원에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판단되어 진다.

3) 한국학원연합회 주최 음악실기 급수자격 검정 시험 평가방법

반면에 한국학원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음악실기 급수시험에서는 평가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세부사항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단지 음악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평가방법 내용으로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문구가 전부이다.

“전국에서 통일된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총연합회에서 위촉한 음대교수 4명 이내로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를 가려 급수증을 교부합니다. “연주후 합격자에게 급수증을 발급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메달을 증정함”(http://www.ma.or.kr/index.htm. 2014.10.22.일 접속)

이 단체의 연주평가는 연주의 결과를 전체적인 효과 면에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오디션에서 주로 사용하는 총체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음악평가에는 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평가목적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음악적 행동이 제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연주평가제도인 한국 학원 연합회의 음악실기 급수시험에서는 평가의 목적·목표 및 평가방법이나 내용적인 측면은 전혀 제시하는 바 없이 합격/불합격이라는 평가 결과만을 언급하며 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4) 급수제도 피아노 부분 연주 평가방법 비교분석

우선 ABRSM와 NYSSMA의 연주 평가는 음정, 박자, 음색 등 여러 평가 부분의 구체적인 연주목표를 제시하고 성적을 합산해서 학생의 음악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체적 접근방식을 따르고 있다. 단순 당락이나 학생간의 경쟁보다는 서술형 평가지에 의한 평가자들의 다양한 비평과 조언을 통해 학생의 연주력 향상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학습발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낮은 급수에서는 ‘매우 뛰어남’, ‘보통’, ‘노력요구’와 같은 묘사적인(Adjective) 평가를, 상위급에서는 A, B, C, D와 같은 평가로 남과의 경쟁이 아닌 학생 스스로 목표를 부여하고 음악적 실력향상을 목적으로 음악학습에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 학원 연합회 급수제도는 단순 합격/불합격의 평가로 교사들이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까지 학생들을 준비시켜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연주 결과를 받고 지원자의 음악적인 수준을 진단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합격하였을 경우, 어느 수준으로 얼마만큼 우수하게 합격하였는지, 불합격하였을 경우, 어느 부분이 미흡하여 불합격하였는지 제대로 분석하기가 어렵다.

평가 시간을 보면 ABRSM의 경우 한 명당 급수에 따라 12분에서 30분, NYSSMA의 경우도 10분에서 15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학원 연합회 급수제도의 경우 평가 시간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으며, 통상 학생 1인당 1분30초에서 3분 미만 정도 듣고 있다고 한다. 떨어지고 붙는 당락을 결정하는 입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유형인만큼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주시간이 제공되는 것이 급수평가의 취지에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연주 시간만이 할애됨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결 론

연주 실력을 평가받고 이를 바탕으로 연주력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국내외에서 음악 급수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있다. 특히 피아노는 음악학습 중 가장 대중적인 악기이며 전공으로까지 연결되는 확률이 높아 급수평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급수평가를 통해 음악적 이해가 높아지고 연주력의 향상

으로 이어지는 본연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급수평가 자체가 좋은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의 성공적인 급수평가 제도를 선정하여 이들 제도가 얼마나 우수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해봄으로써 국내 음악실기 평가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영국의 ABRSM과 미국의 NYSSMA에서 운영하는 음악급수제도와 한국학원연합회 산하 음악교육협회의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음악급수제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급수제도의 설립배경, 구성, 평가내용 및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와 국내 음악급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수제도의 설립배경을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영국의 ABRSM과 미국의 NYSSMA에서 운영하는 음악실기평가제도는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음악학습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각 기관은 단지 학생 연주평가에 국한시키지 않고 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나 음악서적 출판 및 그 외에 다양한 후원을 통해 음악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학원 연합회 산하 음악 교육 협의회는 그 설립목적 자체가 전국 8만 5천 학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사를 대변하는 학원의 대변단체인 만큼(<http://www.ma.or.kr/> (2014. 10.24 접속), 이들이 주관하는 국내 음악급수제도 역시 학생들의 음악학습발전과, 동시에 협의회에 가입된 음악학원들의 운영과 원생관리 측면에도 관심을 두고 운영되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음악 교육 협의회 설립목적 자체가 사교육기관인 학원들의 운영과 교습 상 권익 이해를 보호하고 서로 간 운영 노하우와 교습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만큼, 급수평가제도 운영에 있어 학원경영 측면이 함께 고려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만약에 국내에서 운영되는 연주급수제도가 ABRSM이나 NYSSMA의 급수제도처럼 국가나 자체 지역사회의 자격시험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 평가결과가 공교육과 연계되어진 교육시스템에서 반영되어 활용된다면, 이는 음악교육의 활성화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정책에 있어서 음악교육의 입지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급수제도를 주관하는 기관이 특정집단에 이익을 주는 영리집단이어서는 안될 것이며 철저히 신뢰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에서 국가의 감독 하에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각 급수제도의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음악 교육 협의회 급수제도는 평가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기대효과 등 구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정보

나 자료를 얻기가 힘들었고, 아직 매뉴얼이나 실러버스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홈페이지에 간략한 설명만으로 급수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급수제도 평가구성인 악기 선정에 있어 국내 음악 교육 협의회는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와 이론만 시행하고 있다. ABRSM에서는 피아노를 비롯해서 현악, 관악, 성악, 이론 등 총 35가지의 악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NYSSMA에서는 현악, 관악, 타악, 성악, 피아노가 개설된 독주분야, 실내악분야 뿐만 아니라 대규모 학교 오케스트라, 밴드, 합창단까지 평가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 음악 교육 협의회는 평가 대상 악기의 범위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급수시험에 지원하는 악기의 종류가 제한적인 이유를 분석해보면 시험을 치르는 횟수와 자격요건에 있어 학원연합회에 가입된 정회원의 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난 20여 년간 피아노 부문만 급수시험을 유지해오다가 2005년부터 바이올린, 플루트, 이론시험을 점차적으로 추가하여 시행하며, 최근 피아노 급수시험의 경우, 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비회원 학원장이나 개인교습소 혹은 개인 레슨을 통하여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지원하는 오픈급수 시험을 제한적으로 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학원 연합회에 소속된 학원장의 학원에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원우선권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가 지속된다면 그 폐쇄성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학원을 통한 음악교육이외에 개인교습소나 방문지도 등을 통한 음악교습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직은 대중화되지 못한 악기 학습의 경우 학원이 아닌 주로 개인레슨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평가제도권 안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평가자격 기준 완화 및 일반급수와 오픈 급수 간을 구분하지 말고 운영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급수제도 평가내용에 있어서 ABRSM과 NYSSMA는 시험곡뿐만 아니라 스케일·아르페지오와 같은 기본 테크닉, 초견, 시창 및 청음까지 함께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ABRSM의 경우 6급 이상에 급수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뮤지션십이나 이론시험을 통과가 전제되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에 국내 음악교육협회의 급수제도는 독주곡 연주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질적인 음악의 이해를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악기연주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음악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내용이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포괄적 음악성 개발이 전제된 음악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국내 음악교육의 현실에서 본질적인 음악의 이해를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각 급수별 연주곡목에 제시된 레퍼토리를 살펴보면 ABRSM이나 NYSSMA의 경우 시대별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선택곡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국의 작곡가의 문헌작품이나 창작곡도 다수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음악교육협회의 급수제도는 급수평가 시험에 제시된 연주곡이 해외 평가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으며, 특히 시대별 필수연주 문헌이나 작품의 난이도에 대한 고려와 그리고 자국 고유의 창작 작품 등을 제대로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체르니 연습곡과 고전 소나티네와 모차르트 또는 베토벤 소나타에 집중된 편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진이 지난 2008년 피아노 실기 급수 검정을 위한 피아노 급수 지정곡집 편집과정에 참여하였을 때, 곡 선정 과정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그 중 하나는, 악곡선정 내용에 있어서 교육적으로 권장되어지는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 작품들이 부재하고, 대신 소나티네·소나타 그리고 에튀드와 같은 입시곡 위주 레퍼토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4급에서 바흐 인벤션을 학습하고, 평균율 학습 한 번 없이 모방 대위 기법이 빈번히 등장하는 베토벤 소나타와 같은 대곡을 평가곡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정곡집 개정 시, 선곡 과정에 참여한 본 연구자의 경험으로는 바흐 평균율을 포함하여 20세기 현대작품에 이르기까지 교육적으로 권장되는 새로운 레퍼토리들을 대거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음악 교육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피아노 학원 교사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 이유는 가르치라고 배운 데로 지도하지 않고 배운 데로 가르치는데 익숙한 현장 음악학원 피아노 교사들이 그들이 모르는 낯선 작품들은 어려워서 가르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발전하는데 새로운 레퍼토리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일부 현장 피아노 교사들의 반응은 우리나라 학원 음악교육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음악 급수제도 관련 평가내용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다양한 시대와 스타일의 레퍼토리를 수준별로 개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음악학원 교사 훈련과정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남는다.

넷째, 급수제도 평가방법에 있어서 ABRSM과 NYSSMA의 경우 연주평가의 구체적인 목적,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하는 평가기준표가 마련되어 있다. 반면에, 음악 교육협회의 급수제도는 평가방법에 있어 기대되는 음악적 행동이나 구체적인 평가기준표는 전무하고 단지, ‘합격/불합격’이라는 결과만을 제공한다. 해외 평가제도와 비교해 학생 1명당 평가시간이 1분 30초에서 3분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은 과연 ‘학생의 음악적 발전 경험’과 ‘평가제도 운영의 편리함’ 양 측면 중 무엇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인지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떨어지고 붙는 당락을 결정

하는 입시가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시험인 만큼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주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급수제도 운영의 기본 철학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행 급수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음악 급수제도를 개발하고자 할 때, 연주평가의 구체적인 목적, 목표 및 내용 별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제시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준표가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동시에 음악평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자 측면에서의 편리성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중심적인 관점으로 그들의 연주를 감상해주고 평가하려는 교육적인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음악적 행동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평가기준은 평가의 신뢰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음악학습 상태를 진단하는 척도가 되어준다. 음악 급수시험의 평가는 입학시험이나 콩쿠르처럼 무대에서 보이는 결과가 입학이나 수상의 당락을 결정하는 평가와는 다르다. 급수시험의 설립 및 운영목적은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음악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현재 음악학습 상태를 진단해줄 수 있는 비평가 조언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종합해볼 때 한국 학원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음악 실기 급수시험은 우선 평가 시스템의 체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급수제도의 목적과 목표, 즉 철학적 근거가 명확해야하며, 평가제도의 운영과 그 효과에 대한 자료가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되고 소개되어야한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는 평가곡이 보다 다양해야하며 특히 시대별로 학습에 필수적인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제시되어야한다. 또한 단순한 연주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이해와 음악적 소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론과 청음과 같은 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테크닉에 있어서도 단순히 체르니 또는 쇼팽의 에튀드 같은 작품만 고난도 연습곡을 학습하기 이전에 스케일(병행, 반진행, 3도, 6도 등)과 아르페지오 등 기본적인 테크닉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 시간과 방법 또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음악교육이 갖는 전문성에 기인하여 세계 어디서나 음악교육의 상당부분이 사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음악교육이 개인음악교사나 음악학원, 홈스쿨링과 같은 사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공교육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사교육이나 학교음악교육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관계로 운영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일 것이다. 실제 영국 초등학교의 경우, 이론은 음

악수업에서 배우고 악기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로 사교육이나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에서 진행되는데, 교내 오케스트라 입단의 자격요건으로 ABRSM의 특정 급수취득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 주의 경우, NYSSMA에서 연주평가를 받으면, 학생의 평가표가 가정이 아닌 학교로 발송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연주평가 결과는 학생이 속한 학교에서 학생의 음악학습을 보완하고 개발시키기 위한 자료로 활용 된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급수평가제도가 공교육기관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체계적인 음악연주평가를 담당함으로써 학교음악교육의 진행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음악실력 향상에도 기여함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음악평가 제도를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 그 주체가 교사나 학원이 아닌 학생중심적인 관점에서 평가 내용 및 방법이 개발되어져야 진정한 음악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국내 음악교육 및 연주평가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 권수미 (2010). “한국 피아노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음악과 민족』, 제 39호, p. 315-344.
- _____. (2012). “피아노 교육에서 《체르니 100번 연습곡》의 연주 기술 분석과 활용 실태 조사.” 『음악학』, 20권 1호 통권22호, p.71-110.
- 노원정 (2004). ‘피아노과입시유형분석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배 (1998). **평가방법탐구**. 서울: 형설출판사.
-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음악교육협의회 편 (2008). **피아노 실기 급수 검정을 위한 피아노 급수 지정곡집 1**. 서울: 뮤직트리.
- _____. (2008). **피아노 실기 급수 검정을 위한 피아노 급수 지정곡집 2**. 서울: 뮤직트리.
- _____. (2008). **피아노 실기 급수 검정을 위한 피아노 급수 지정곡집 3**. 서울: 뮤직트리.
- 송해정 (1997). ‘현행 음대 피아노 입시지정곡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병우 (1992). “피아노전공 신입생 실기전형방법에 관한 연구: 최근 음대 입시과 제곡의 경향과 성격분석.” 『서울시립대학교논문집』 제26집, 503-538.
- 양윤정 (2013). “영국 왕립음악대학 연합회 총체적 음악교육을 위한 주요 활동분야간의 유기적 관계.” 『음악교수법 연구』, 제12집, 49-74.
- ABRSM (2013a). *Exam Information & Regulations*. Exeter, U.K.: Polestar Wheatons.
- _____. (2013b). *Piano Syllabus*. Exeter, U.K.: Polestar Wheatons.
- New York State School Music Association (2009). *NYSSMA MANUAL*. NY: Tucker printers.
- 전국음악교육협의회 전화교신 2014. 03. 21
- <http://www.abrsm.co.kr> (2014.05.22 접속)
- <http://www.abrsm.co.kr/02test/01.php?depth=1> (2014.05.22 접속)
- <http://www.ma.or.kr/> (2014. 10.22 접속)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0041542>
- <http://www.nyssma.org/wp-content/uploads/2013/06/NYSSMA-Festival-Calendar-1-14-14.pdf>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music grading system operated by ABRSM, NYSSMA and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mus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Su-Mi Kwon · Wan-Kyu Ch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 of the graded piano exam operated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private music institutions in South Korea.

In this research, two most representative music grading system operated by ABRSM and NYSSMA were compar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 history and background literature review, structure, content and assessment methods operated by the three institutions,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ould provide and academic foundation to settle the proper music assessment system.

Key words: piano education, music education, music assessment, graded piano exam, music grading system

투고일: 2014년 8월 31일, 심사(수정): 10월 20일(10월 26일), 게재확정일: 11월 20일